

제주 도심지 행복주택 건립 시동 건다

도, 시민복지타운 대체부지 4곳 이달중 승인 예상 화북·삼양·연동·노형에 600세대 이상 규모 건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대체부지에 대한 행복주택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립백지화에 따른 대체부지로 확정된 삼양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4곳에 대해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국토부의 후보지 선정 승인은 빠르면 이달중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 도심에도

600세대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 행복주택 후보지 제안 사유는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국·공유지 등 건축물이 들어설 용지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원활한 추진 차원에서 노외주차장 등 공유지를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제주시 화북상업 도지개발사업지역(화북1동 1400 일원 3390㎡)과 연동공한지 주차장(연동 1375-3 일원 1973㎡), 삼양동 공영주차장(삼양2동 2176-13 일원 2234㎡), 노형동 공영주차장(노형동 2517-1, 1423㎡) 등 네곳이다. 계획세대수는 화북인 경우 300세대로 가장 많고 연동 160, 삼양동 100, 노형동 80세대 등이다. 제주도가 당초 복지타운 대체부지로 발표한 다섯곳 중 한 곳인 동부환승센터(172호)는 별도의 실시계획영역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복합용도로 추진하게 된다. 지하 3개층 및 지상 1층 등 4개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상 2개 층 이상은 행복주택과 주택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현재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주차면수를 확대해 편의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2곳에 대해 주민센터와 행복주택, 공영주차장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사업계획이 승인돼 추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지난해 진행된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팸투어.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의 숨은 멋, 건축기행 떠나요”

시, 테마별 시범투어 운영 올해 연말까지 총 10차례

서귀포시의 대표 관광상품인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의 전국 홍보를 위한 테마별 시범투어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는 이달 31일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하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10차례의 시범투어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7-8월에는 방학을 맞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건축문화체험을 마련한다. 건축문화기행은 2년여에 걸쳐 건축과 여행전문가 답사를 통해 10개 코스를 개발했고, 지난해 언론인과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11차례의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가 여행 관련 전문기관인 (유)풍남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건축문화기행은 >8월 17일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 거장의 작품 탐방(섭지코지의 안도타다오 건축 탐방) >24일 별빛과 음악이 함께 하는 서귀포 건축투어(서귀포관광공장의 토요공원과 콜라보1) >25일 4·3 다크투어(전쟁과 근대건축) >9월 7일 21세기 현대건축기행 >21일 서귀포관광공장의 토요공원과 콜라보2 >22일 제주도 전통건축투어(정의음성을 중심으로 전통가옥 탐방·김영갑갤러리) >28일 목축과 건축(따라비오름, 갑마장길을 중심으로 체험 포함) >10월 5일 서귀포관광공장 토요공원과 콜라보 3 >11월 16일 건축거장의 작품 탐방(안덕면, 이타미 준 코스)으로 꾸려진다.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해설사가 동행해 건축·역사와 문화·자연에 아우르는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회차별 신청기간에 서귀포건축문화기행이나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차별 40명씩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제주올레 콜센터 762-2190, 유한회사 풍남 762-2178. 문미숙기자

강정-월평마을 진입로 확장

서귀포시는 강정마을(동해물가든)에서 월평마을 입구까지 500m 구간 도로를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구간은 강정마을 코사마트에서 월평마을까지 총 연장 2390m의 도로 중 2007년까지 확장사업이 마무리된 1890m를 제외한 잔여구간으로, 폭 8m의 좁은 도로와 인도시설도 없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24필지, 3039㎡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6월 말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사회 결정 논의, 제주 손으로”

제주서 열린 해양학자대회 송재호 위원장 발제 통해 자기결정권 속 발전 강조

제주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해양형 국제자유도시 제안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제주사회의 결정 논의는 제주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제2공항, 해군기지 갈등을 놓고 서울에서는 ‘제주는 이렇게 좋은 거주는데 왜 시끄럽게 싸울까’라며 이해를 못한다”며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 갈등이 관리·수렴되는 과정에서 제주발전 모델이 도출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 위원장은 ‘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주도의 첫 천년은 탐라왕국, 두번째 천년은 삼무(三無)·삼다(三多)”라면서 “과거 제주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다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와 인접한 곳은 제국의 형태로 변형을 얻었다. 그러



4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나 주요 교통 방식이 배에서 말 등 육상으로 바뀌면서 (제주) 쇠락하게 됐다”고 제주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 생태환경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세번째 천년”이라며 “지금은 항공교통, 특히 인터넷 통신교통의 시대다. 섬들이 이 기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995년 관광객 수요 예측 때만 해도 1500만명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며 “많이 오는 게 좋으니 고민해야 한다. 섬의 민감성과 훼손, 매력 저하 등이 섬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섬을 어떻게 극대화해야 해야 하는지 주목할 게 국가 개념, 즉

지방국가”라면서 “참여정부가 처음 도입한 게 특별자치였으며, 제주도가 그러한 특별자치의 잘 활용해 헌법정신(헌법적 지위 보장)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제주는 운명적으로 대제국과 정치·경제학적으로 인접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대제국 사이에서 먹고 살아야 할 해양경제 원형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국제자유도시”라고 밝혔다.

뒤이어 “제주는 홍콩, 싱가포르 자유무역도시와는 다른 해양경로를 이용한 해양형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4·3 홍보영상 첫 공모

제주4·3평화재단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유튜브 등 영상으로 4·3을 홍보하기 위해 '제1회 4·3과 평화 영상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영상공모의 주제는 '4·3의 진실', '4·3의 교훈', '평화와 인권'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전문가 심사에 의해 대상(200만원) 등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형식은 애니메이션, 플래쉬, 패러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 자유로운 영상 창작물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5일(오후 6시)까지 메일(jjp43@daum.net)로 작품을 접수한다. 입상작품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4·3의 교훈을 확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양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분량, 시상내역,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양식 등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소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